

19세기 『학봉종가 한글편지』에 나타난 질병 관련 어휘에 관한 고찰*

이승희**

1. 서론
2. 『학봉종가 한글편지』의 자료적 특징
3. 『학봉종가 한글편지』에 나타난 질병 관련 어휘와 그 특징
 - 1) 『학봉종가 한글편지』에 나타난 질병 관련 어휘
 - 2) 『학봉종가 한글편지』의 질병 명의 특징
4. 『학봉종가 한글편지』에 나타난 의약생활사의 모습
 - 1) 전염병의 예방: 피우
 - 2) 천연두의 예방: 종두(種痘)
5. 결론

1. 서론

조선시대 한글편지가 국어사 연구 자료로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16세기 우리말본』(허옹, 1989)부터가 아닌가 한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글편지의 역주 작업과 이를 토대로 한 國語史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어사 분야뿐만 아니라 국어교육이나 역사 분야에서도 조선시대 한글편지를 통해 당대의 ‘生活史’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발견된다. 한글편지는 주로 친족 간에 안부를 주고받거나

* 이 논문은 2018년 상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집안의 여러 일에 대해 소식을 전하는 등 私的 記錄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를 통해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 자료라 할 수 있다.

최근 19세기 자료인 『학봉종가 한글편지』에 대한 새로운 역주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이 자료는 19세기 국어, 특히 경북 안동 지역의 방언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方言史 연구의 중요한 자료인 동시에, 사대부 집안의 일상생활과 科舉, 官職, 賣買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이 드러나므로 生活史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학봉종가 한글편지』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疾病’과 관련된 내용이 유독 많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집안 식구들의 질병, 증상, 예방과 치료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많고, 질병 관련 어휘나 표현 중에는 오직 『학봉종가 한글편지』에만 나타나는 것도 여럿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봉종가 한글편지』에 등장하는 질병 명칭을 분류하여 살펴보되, 여기에 드러난 어휘적 특징, 특히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 양상, 방언형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어휘사 연구의 관점에서 질병 명칭은 후기 중세 국어 이래로 오늘날까지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더구나 19세기 말 서양 의학이 조선에 소개된 이후 질병이나 치료, 약품 등 의학 분야의 어휘는 급격히 변화하여, 전통적인 의학 분야의 어휘는 현재 제한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19세기 말 서양 의학의 도입 이전, 19세기 전반기에 일상생활에서 질병 관련 어휘가 어떠한 양상을 보였는지 그 일단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생활사 연구의 측면에서는, 『학봉종가 한글편지』에 등장하는 ‘피우’와 ‘종두’라는 어휘를 중심으로 당시의 전염병 예방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9세기 전반기에 疫疾을 예방하기 위해 ‘종두’를 시행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봉종가 한글편지』의 자료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의 ‘종두’는 요즈음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牛痘法’이 아니라 ‘人痘法’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4장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2. 『학봉종가 한글편지』의 자료적 특징

본고에서 연구 자료로 삼은 『학봉종가 한글편지』는 19세기 경북 안동 지역에 세거한 鶴峯 金誠一의 10대 종손 金鎮華(1793~1850) 집안에서 주고받은 273편의 한글편지이다. 이 편지 중 일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의성김씨 김성일파 종택 한글 간찰(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6)』(2009-Ⅱ)과 『의성김씨 천전파·초계정씨 한글 간찰(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10)』(2009-Ⅲ)로 해독 및 역주된 바 있으며, 여기서 공개되지 않은 한글편지 77편은 김한별(2015)에서 소개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이병기 외(2017)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역주 작업을 한 자료와 미공개 자료를 하나로 합쳐 『학봉종가 한글편지』로 정리, 일련번호를 새로 부여하고, 해독 및 역주 작업을 다시 하였다.¹⁾

여기에서는 『학봉종가 한글편지』의 시대, 발신자, 편지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먼저 자료의 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봉종가 한글편지』는 한 집안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주고받은 편지로서 시기상 가장 빠른 것(1765년)과 가장 늦은 것(1883년) 사이에 약 12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001>~<004>를 제외한²⁾ 269편은 모두 19세기 자료이다. 그리고 269편의 편지 중 1829년부터 1850년 사이의 편지, 즉 19세기 전반의 자료가 229편으로 가장 많다.

『학봉종가 한글편지』의 발신자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편지를 남긴 사람은 김

1) 본고에서 제시한 예시 자료의 출처, 즉 편지의 일련번호와 해독, 현대어 역 등은 모두 이 병기 외(2017)를 토대로 하되, 해독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바로잡아 제시하고 주석을 통해 이 사실을 밝혔다. 예시의 출처에는 편지의 일련번호와 발신 시기를 밝히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발신자와 수신자도 함께 제시하였다.

2) 『학봉종가 한글편지』는 19세기 자료이나, 예외적으로 <001>~<004>는 18세기 자료이다. 학봉 김성일의 8대 종손 金光燦이 1765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내 진성이씨에게 토지 문제를 부탁하는 글을 한문으로 남겼는데, 김광찬이 세상을 떠난 후 부친인 金柱國이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한글로 적은 것이 <001>이고, 김주국이 죽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런 사정을 밝혀 적은 것이 <002>이며, 며느리 진성이씨에게 당부하는 글을 적은 것이 <003>이다. <004>는 <001>에서 김광찬이 유언으로 남긴 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부친 김주국이 1767년에 이를 다시 확인, 며느리에게 남긴 글이다. 이들은 일반적인 한글편지와 형식 및 목적,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진화의 부인 여강이씨로 총 96편이 전한다. 남편 김진화에게 쓴 편지가 72편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는 아들 金興洛, 딸, 남편의 측실, 하인 등에게 보낸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김진화의 넷째 딸이 23편(수신자는 주로 아버지와 남동생), 둘째 딸이 19편(수신자는 주로 아버지), 김진화 18편, 김진화의 며느리[맏아들 김홍락의 부인] 진성이씨 18편(수신자는 주로 시아버지와 남편), 김진화의 사돈, 즉 맏아들 김홍락의 장모인 아주신씨 13편(수신자는 주로 사위) 등의 순서이다. 그 외에도 김진화의 장모인 의성김씨, 첫째 딸과 셋째 딸, 제수인 고성이씨와 아주신씨, 진주강씨 등이 쓴 편지와, 김진화의 친족 외에도 의원, 하인, 토지 거간꾼, 경초관, 측실의 언니 등이 쓴 편지가 전하고 있다.

이들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집안의 冠婚喪祭나 科舉 시험과 같은 중요한 행사의 준비와 시행, 일상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 소식을 전하고 의논을 하거나, 건강 문제, 특히 질병으로 고통 받는 상황을 하소연하고, 증세와 치료 방안 등을 의논하는 내용이 많다.³⁾ 조선 시대 한글편지가 주로 친족 간에, 그리고 대체로 발신자나 수신자 둘 중 하나가 여성인 경우에 주고받는 일상의 소통 수단이었음을 생각하면, 이와 같이 집안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학봉종가 한글편지』의 시기, 발신자, 내용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은 김진화(1793~1850)란 인물의 삶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273편의 편지 중 김진화가 발신자인 것은 18편에 불과하지만 김진화가 수신자인 것은 총 165편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김진화는 1828년 12월 27일에 창릉 참봉에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185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漢城, 青松, 原州, 純州, 茂長 등 여러 지역에서 관직 생활을 하느라 경북 안동 금계리에 있는 집을 떠나 지낸 시간이 많았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집안 식구들이 그에게 보낸 편지가 유독 많았던 것이다. 그리고 김진화는 고질적인 병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관직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였기 때문에, 또한 스스로 의서를 찾아보고 처방을 내리는 등 의약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3) 편지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273편 중 ‘질병’ 또는 ‘의약’을 키워드로 하는 편지는 108편으로 전체의 1/3 이상이다.

때문에, 김진화가 보내거나 받은 편지에는 질병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타난다. 그 결과 『학봉종가 한글편지』에는 19세기 전반기에 당시 사람들을 괴롭혔던 여러 가지 질병의 명칭과 증상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의약, 처방 등과 관련된 기록도 나타나 있다.

3. 『학봉종가 한글편지』에 나타난 질병 관련 어휘와 그 특징

1) 『학봉종가 한글편지』에 나타난 질병 관련 어휘

『학봉종가 한글편지』에는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에 대한 문답, 질병의 증세와 예방, 치료 등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타나며, 이와 관련된 어휘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질병이 아니라 포괄적인 ‘病’을 가리키는 어휘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 (1) ㄱ. 병(病), 병환(病患), 환후(患候), 질양(疾恙)
- ㄴ. 첨상(添傷), 첨환(添患), 첨손(添損), 첨결(添節)

(1ㄱ)은 기본적인 ‘병’을 가리키며, ‘병환, 환후’는 ‘웃어른의 병’을 가리킨다. ‘질양’은 다른 자료에서 잘 보이지 않는 단어인데, 『학봉종가 한글편지』에서 1회 등장한다. (1ㄴ)의 단어들은 한자 ‘첨(添)’이 결합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병이 더침, 혹은 더치는 일’을 가리키는데, 주로 웃사람의 병에 대해 묻거나 걱정 할 때 쓰이는 단어들이다.⁴⁾ 이처럼 ‘병’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 한글편지가 (일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소통 수단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특히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더 공손한 표현, 상대방을 더 높이는 표현이 필요

4) ‘질양(疾恙)’과 ‘첨상(添傷), 첨환(添患), 첨손(添損), 첨결(添節)’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조선시대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임을 한국고전종합DB (db.ik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므로 이를 위해 다양한 어휘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학봉종가 한글편지』에는 (2)에서 보이듯 병의 구체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용언이나, (3)과 같이 병이 든 상태나 병들어 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다양한 용언도 등장하고 있다.

(2) 만신이 덥고 찝고 번열호고 지절이 알푸고 쑤시고 두 관즈빼가 알푸고 들썩 " " 흐고 허리 알푸고 목이 갈흐고 콧물이 흘으고 가삼이 답" 어득흐고 〈022〉

(3) ㄱ. 호철 부즈도 환탈호오니 절박호오이다 〈161〉

ㄴ. 경쥬 괴별 세말의스 드르니 … 다 감기들 잔샹타 흐옵고 〈005〉

ㄷ. 노친 엄엄호시다 흐오니 ݣ이업습고 〈103〉

ㄹ. 네 누의 성" 찬타 흐니 〈069〉

(2)에 밑줄 친 용언 중 ‘번열(煩熱)하다’, ‘갈(渴)하다’를 제외한 ‘덥다’, ‘찝다’, ‘알푸다’, ‘쑤시다’, ‘들썩들썩하다’, ‘(콧물이)흘하다’, ‘(가삼이)답답하다’와 같은 용언은 현대국어에서도 병의 증상을 설명할 때 여전히 쓰이는 어휘들이다. 그에 비해

(3)에 보인 예들은 현대국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데, ‘환탈(換奪)하다’는 ‘병으로 인해 땀사람처럼 변하다’라는 의미이며, ‘잔샹(辱傷)하다’와 ‘엄엄(奄奄)하다’는 각각 ‘가엽게 느낄 정도로 너무 가냘프고 약하다’, ‘숨이 곧 끊어지려 하거나 매우 약한 상태에 있다’의 의미이다. 한편, ‘성성하다’는 ‘생기가 있다, 힘이나 기운이 왕성하다’라는 의미로 현대국어 ‘싱싱하다’ 또는 ‘생생하다’와 동일하나, 현대국어와 달리 근대국어 시기에는 부정문인 ‘성성치 않-/못흐-’의 형태로 사람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나타낼 때 많이 쓰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학봉종가 한글편지』에는 질병과 관련하여 다양한 어휘가 등장하는데, 본고에서는 이들 중에서도 ‘명사’, 즉 구체적인 질병 명칭을 대상으로 특징적인 면모를 살펴보자 한다. 먼저 『학봉종가 한글편지』에 등장하는 질병 명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⁵⁾

5) 질병 분류 기준은 한국질병분류 정보센터(KOICD)에서 제시한 질병 분류 목록을 참고하였다.

〈표 1〉 『학봉종가 한글편지』에 나타난 질병 명칭

		『학봉종가 한글편지』	관련 어휘
감염성	마마 (천연두)	두딜(痘疾), 역딜/역질/녁딜(疫疾), 시두(時痘)	종두(種痘), 피우(避寓)
	홍역	홍진(紅疹), 홍역(紅疫)	피우(避憂)
	말라리아	학증(虐症), 양일학(兩日瘡), 초점	직
	수두	슈두(水痘)	
	이질	이딜/이질(痢疾), 이증(痢症), 설소/설사(泄瀉), 설증(泄症), 설후(泄候)	
	파상풍	파상풍(破傷風)	
	기타	시기(時氣)	
신경계통		두통(頭痛) 풍두(風頭) 허증(虛症), 혼기(眩氣)	
	눈	안질(眼疾), 안환(眼患), 윤안(輪眼)	
	귀	귀것 ⁶⁾	
호흡계통	감기	감기(感氣), 감환(感患), 독감(毒感), 윤횡감기 (輪行感氣)	
	기침	회소(咳嗽), 회소증(咳嗽症), 회천(咳喘)	
	기타	담증(痰症), 격담(膈痰), 혈담(血痰) 목아리	
소화기계통	복통	복통(腹痛), 비아리, 넝복(冷腹)	
	소화불량	체증(滯症), 체기(滯氣)	
	치핵	치질(痔疾)	
피부	종기	동기/종기(腫氣), 종환(腫患), 대종(大腫), 동점/종점(腫點), 응질(癰疾), 두종(頭腫), 면종(面腫), 유종(乳腫)	파종(破腫), 완합(完合)
		두창(頭瘡), 감창(疳瘡), 창질(瘡疾)	
		쥐부르음	
		현드/현데, 헐미/현미	
비뇨생식계통		근위(筋痿)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젖몸술	
기타 ⁷⁾		흉통(胸痛), 흉복(胸腹)/흉복통(胸腹痛) 한속증/한속증(寒粟症), 아장(啞瘴)	

6)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귀나 그 언저리에 젖꼭지 모양으로 볼록 나온 군살’의 의미를 지닌 ‘귀젖01’과 ‘귓속에서 고름이 나오는 귓병. 또는 그 고름’의 의미를 지닌 ‘귀젖02’를 동음이 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학봉종가 한글편지』에서는 “년의 귀젖은 소향을 여혀도 낫디 아니오니 절박 고딜이 될 듯 호흡”이라 한 것으로 보아 후자의 의미로 파악된다.

7) 한국질병분류 정보센터(KOICD)의 ‘질병 분류 목록’에서는 ‘흉통’이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이와 같이 『학봉종가 한글편지』의 질병 명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고유어의 예가 드물고 한자어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어휘의 예가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2) 『학봉종가 한글편지』의 질병 명의 특징

(1) 한자어 사용 경향

『학봉종가 한글편지』에 나타난 질병 명의 특징 중 하나는 고유어의 사용보다 한자어의 사용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물론 질병 명 중에는 ‘病’, ‘紅疫’, ‘破傷風’, ‘滯症’ 등과 같이 한자어를 대체할 고유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말라리아를 가리키는 ‘고곰’이나 ‘비알히’, ‘가슴알히’, ‘기춤/기츰’, ‘브스름’〈브으름/브스름〉 등과 같은 고유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19세기의 일상생활을 반영한 私的 資料인 한글편지에서는 이러한 고유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학봉종가 한글편지』는 이러한 예상과 달리 고유어의 사용이 드물고 한자어의 사용 비중이 높다.

앞서 <표 1>에 제시된 예들을 보면 『학봉종가 한글편지』의 질병 명 중 고유어의 예는 ‘초점, 비아리, 목아리, 귀젓, 쥐브르음, 헌듸/헌데, 헌미/혈미, 젓몸술’ 정도를 찾을 수 있는데, 한자어의 경우와 비교하면 그 수가 매우 적다. 또한 이들 어휘는 출현 빈도도 매우 낮아서, ‘초점, 헌듸/헌데, 헌미/혈미’를 제외한 ‘비아리, 목아리, 귀젓, 쥐브르음, 젓몸술’은 자료 전체를 통틀어 각각 1회씩 출현하였다.

그에 반해 한자어 질병 명은 매우 다양하고 빈도가 높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표 1>에 제시된 한자어 질병 명 중 근대국어 시기에 그에 대응하는 고유어 명칭이 존재했던 예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 소견 항목 중 ‘순환계통 및 호흡계통의 증상 및 징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표 2〉 『학봉종가 한글편지』의 질병 명과 고유어 비교

	『학봉종가 한글편지』의 질병 명		[비고] 고유어 질병 명
	한자어	고유어	
마마/천연두	두딜(痘疾), 역질(疫疾), 시두(時痘)		*손님 ⁸⁾
학질/말라리아	학증(虐症), 양일학(兩日瘡) ⁹⁾	초겸(방언형-5회)	고곰
감기	감기(感氣), 감환(感患)		곶불
복통	복통(腹痛)	비아리(1회)	비알히, 비아리
해소/기침 가래	헉소(咳嗽), 헉소증, 헉천(咳喘) 담증(痰症), 격담(膈痰)		기杼 그래杼
종기/부스럼	종괴(腫氣), 종환(腫患) 옹질(癰疾), 창질(瘡疾)	쥐브르음(1회)	브으름/브스름
기타	흉통(胸痛) 한속증(寒粟症)		가슴알히 소오름>소름

현대국어의 ‘天然痘’를 가리키는 질병 명이 조선 시대에는 주로 ‘痘瘡’으로 나타났는데,¹⁰⁾ 조선 전기 민간에서는 주로 ‘횡역(行疫)’이라 불렸고, 17세기 이후 20세기 초까지는 ‘역질(疫疾)’이 민간의 대표적 용어였다(신동원 2013: 166-169).¹¹⁾ 이러한 경향이 19세기 자료인 『학봉종가 한글편지』에도 그대로 나타나,

8) 근대국어 문헌 중에 ‘두창’을 가리키는 어휘로서 ‘손님’이 쓰인 예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신동원(2013: 174)에서는 19세기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痘疫有神辨證說」에 “我東則痘神。曰胡鬼媽媽。又稱客至。嶺南稱西神。”라는 구절을 근거로 이 시기에 ‘마마’가 독자적 명칭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客’, 즉 ‘손님’이라는 고유어 명칭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9) ‘양일학(兩日瘡)’은 이를률 걸러 발작하는 학질인 ‘이틀거리’와 동의어이다.

10) 조선시대에는 ‘痘瘡’이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외에 ‘痘疹, 痘疫, 痘疾, 豌豆瘡, 剁豆瘡, 斑疹, 瘡疹, 瘡瘡, 癰瘡’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최세진의 『훈몽자회』에는 ‘횡역’, ‘斑子’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정연식 2005: 100-101).

11) 한글 문헌의 경우, ‘횡역(行疫)’의 예는 15세기 『救急簡易方』과 16세기 『訓蒙字會』, 17세기 『譯語類解』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예) ㄱ. 횡역이 누네 드느니 횡역이 즙를률 <구급간이방 1:목록9-1>

ㄴ. 痘 檢疫 두 <훈몽자회 중:16-1>

ㄷ. 出痘兒 檢疫 斑子 檢疫 <역어유해 상:62-1>

그에 비해 ‘두창(痘瘡)’의 예는 17세기 『痘瘡經驗方』과 『諺解痘瘡集要』에 주로 나타나고, ‘역질(疫疾)’의 예는 17세기 『痘瘡經驗方』과 『諺解痘瘡集要』, 18세기 『同文類解』와 『譯語

‘횡역’과 ‘두창’의 예는 보이지 않고 주로 ‘역딜/역질/녁딜(疫疾)’이란 어휘가 사용되었다.¹²⁾ 그리고 드물게 ‘두딜(痘疾)’과 ‘시두(時痘)’의 예가 각각 1회 나타났다.

- (4) ㄱ. 뒤꼴 역딜이 드려 훈 집이 흐고 다시 과격 업다 흐니 엇더흘동 넘녀되옵
〈033, 1829~1830년〉
- ㄱ’. 역질이 있다고 창연을 이리 다려오려 흐엿습더니 〈154, 1833년〉
- ㄱ”. 그전의 녁딜은 낸전의 혹독히 흐고 그 후 인회 거동이 본상이 아니운더
〈206, 1848년〉
- ㄴ. 어린 손즈놈 … 역딜 둉히 흐고 두딜 후 옹딜 대단 빅약이 무효흐오니
〈006, 1839년〉
- ㄷ. 창연을 이리 다려오려 흐엿습더니 훌연 근의 증식이 시두를 시죽흐여 못
다려오니 〈154, 1833년〉

그러나 19세기에 두창을 가리키는 어휘로 ‘마마(媽媽)¹³⁾와 ‘*손님’이 민간에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학봉종가 한글편지』에는 그 예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말라리아를 가리키는 고유어 ‘고곰’은 16세기 『訓蒙字會』(1527), 17세기 『譯語類解』(1690) 등에서 확인되는데,¹⁴⁾ 18세기 『同文類解』(1748)와 『倭語類解』(1781),

類解補, 『蒙語類解補』 등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예) ㄱ. 出花兒 역질하다 送痘 송신하다 〈동문유해 하:7ㄱ〉
- ㄴ. 見苗 역질삭 뵈다 … 痘回了 역질 도셔다 送痘 송신하다 〈역어유해보 34ㄴ〉
- ㄷ. 出花 역질 뜻다 〈동어유해보 24ㄱ〉
- 12) 『학봉종가 한글편지』에 ‘두창’의 예가 보이나 이때는 문맥상 ‘痘瘡’이 아니라 ‘頭瘡’의 의미로 파악된다.
- 13) 신동원(2013: 175-176)에서는 18세기 문헌인 『方言類釋』(1778)에 ‘痘回了’란 표제어가 조선어로는 ‘역질도셔다’인데 청나라 말로는 ‘마마 마림비’, ‘送痘’이라는 표제어가 조선어로는 ‘송신하다’인데 청나라 말로는 ‘마마 부텀비’인 점에 주목하여, ‘두신’을 가리키는 만주어가 ‘마마’이며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단어를 차용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 14) 15세기에는 ‘고봄’으로 나타났는데(예: 고봄과 痘疾로 巴水를 먹고 헐모는 모므로 蜀都애 셔 늙노라<두시언해 24:60>), 16세기 이후로는 ‘고곰’의 형태로 나타난다. 16세기와 17세기에 ‘고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예) ㄱ. 痘 고곰 희 瘡 고곰 학 痘 고곰 족 〈훈몽자회 중:16ㄱ〉
- ㄴ. 瘡疾 고곰 半日病 고곰 發午哥子 고곰 〈역어유해 상:61ㄴ〉

『蒙語類解』(1790)에는 ‘고곰’ 대신 한자어 ‘학질(瘧疾)’이 등장하고 있어서 18세기부터는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더 널리 쓰이게 되었음을 보여준다.¹⁵⁾ 『학봉종가 한글편지』에서도 ‘고곰’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한자어인 ‘학증(瘧症)’이 등장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중에서도 ‘이틀거리’에 해당하는 병은 ‘양일학(兩日瘧)’으로 지칭되고 있다.

- (5) ㄱ. 아즈바님괴셔도 학증 깅발 비경타 호오니 민망 <063, 1847년>
 ㄱ'. 사돈계셔 쪼 학증 발쪽호온 듯 절박 답” 습고 <225, 1848년>
 ㄴ. 어마님 모즈 천만 싱각 뱃 양일학 일시여 시죽호여 직포 지너시다 호오니
 ... 폐돌 양일학 민망 ” 호옵고 <176, 1842~1846년>

다만 『학봉종가 한글편지』에는 ‘말라리아’를 가리키는 어휘로, 방언형으로 추정되는 ‘초점’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 특이한데, 이 어휘는 현대국어의 경상방언에 ‘초점’으로 남아 있다(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를 것이다).

고유어 ‘비알히’는 15세기부터 등장하지만, 그 이후 문헌에서 한자어 ‘腹痛’에 밀려 그 빈도가 점점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학봉종가 한글편지』에서 한자어 ‘복통(腹痛)’은 여러 발신자의 편지에서 총 15회 출현하는 데 비해 ‘비아리’는 자료 전체에서 단 1회 출현하였다.

- (7) 비아리에 샤름이 무슈이 죽으니 내가 약을 내야 오격산이란 낙을 맥이니 …
 두엇다가 비 알코 가슴 알커던 먹여라 <018, 1838년>
- (7') ㄱ. 너도 성” 치 아니호여 복통과 설샤 딕단이 지내다 호니 <069, 1847년>
 ㄴ. 복통 종시 낫지 아니호옵신 일 답” <083, 1847년>

15) 18세기 어휘집에서 ‘학질’이 등장한 예들은 다음과 같다.

- (예) ㄱ. 半日病 학질 <동문유해 하:6 ㄴ>
 ㄴ. 학질 瘧疾 <왜어유해 상:50 ㄱ>
 ㄷ. 半日病 학질 <몽어유해 하:5 ㄱ>

다만 18세기 말 『方言類釋』에는 여전히 ‘고곰’의 예가 보이고, 19세기 『韓佛字典』(1880)에는 ‘고곰’과 ‘학질’이 함께 나타난다. 그러나 19세기부터는 ‘학질’의 예가 압도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도 ‘고곰’과 ‘고금’이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고금’은 한의학 용어로, ‘고곰’은 방언형으로 남아 있다.

- ㄷ. 덕수오심 즐시 보오니 대단 첨양은 업수오시나 복통 일양이오신 일 답”
 〈084, 1847년〉

또한 한자어인 ‘희소(←咳嗽)’는 7회, ‘희소증(咳嗽症)’ 1회, ‘희천(咳喘)’은 1회 등장하였으나 고유어인 ‘기침’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 (8) ㄱ. 괴태후 대단 불평호옵셔 희소와 격담으로 민망호옵시다 흐오니 〈160, 1847년〉
 ㄴ. 즓부는 우환 일양 가감 업시 그만호다가도 한속 더호여지옵고 희소증 빈
 열증 일양이오니 〈202, 1845년〉
 ㄷ. 우리는 밋것 희천 민망호고 〈012, 1838년〉

『학봉종가 한글편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병은 피부병인 ‘종기’와 ‘현데’이다. 집안 식구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종기와 현데로 고생하는 상황이라든가 현데가 악화하여 치명적인 파상풍으로까지 진행된 일 등이 편지 곳곳에서 발견된다. 현대사회와 달리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독과 치료 방법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피부병이 매우 흔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어휘의 측면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피부병 중에서 고유어인 ‘현듸/현데’의 빈도는 매우 높은 데 비해,¹⁶⁾ ‘종기(腫氣)’에 대해서는 고유어인 ‘브스름/브으름’의 예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⁷⁾ 아래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기’와 관련한 명칭은 기본적인 ‘동기/종기(腫氣)’부터, 높임의 의미를 더한 ‘동환(腫患)’, 증세의 심각성을 반영한 ‘대종(大腫)’, 그리고 종기가 난 부위에 따른 ‘두창(頭瘡), 면종(面腫), 유동/유종(乳腫)’ 등 다양한 한자어가 쓰

16) 『학봉종가 한글편지』에서 ‘현듸’는 1회, ‘현듸’는 20회, ‘현데’는 3회 등장하여, 총 24회 출현하였다. 몇 예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예) ㄱ. 손의 현듸 엇더호오신고 〈157, 1842~1846년〉
 ㄴ. 즓부도 현듸 그만호옵더니 죄 파상풍 호고 결박호오이다 〈209, 1848년〉
 ㄷ. 나는 현데 낫지 아니하고 오른작 말이 붓고 덧날 상부르니 엇지홀고 〈018, 1838년〉

17) ‘종기’ 등에 대한 고유어로서 ‘현듸/현데’가 쓰인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같은 발신자가 같은 문맥에서 이 두 어휘를 함께 사용한 예도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예) 며느리 초성의 올흔풀에 대종이 나 파종호여시나 완합이 쉽지 아녀 즉금은 거의 완합지경이 되여시나 현듸난 팔 아랫마디 늑려와 콩낫막곰 혼 거시 도다 까기히 아푸고 〈096, 1848년, 여강이씨(부인)→김진화(남편)〉

이고 있다. 그러나 ‘브스름/브으름’ 계열은 오직 ‘쥐브르음’의 예가 1회 등장할 뿐이다.

(9) ㄱ. 즈부도 이마 가르미의 동그이가 조고만치 나더니 점” 더흐와 온 낫치 모도 붓고 딕단” 흐옵더니 요소이는 겨요 파동흐와 너노록흐오니 <215, 1850년>

ㄱ'. 디손부도 쫑괴로 둘포 신고흐는 일 절박 앗쳐롭고 <009, 1848년>

ㄴ. 아바님겨오셔 동화으로 일망이나 대단” 망조히 디나오시고 <238, 1849년>

ㄷ. 며느리 초성의 올흔팔에 대쫑이 나 파종흐여시나 완합이 쉽지 아녀 즉금은 거의 완합지경이 되여시나 <096, 1848년>

ㄹ. 두창 딕단 온 머리 성호 더 업소오니 <096, 1848년>

ㅁ. 며느리는 그 면쫑이 덧나 대단” 큰일이 날 번흐고 요소이는 완합이 되오니 <116, 1850년>

ㅂ. 인동집 유쫑 곰기도 아니흐고 젓속지 짹으로 쓴” 흐고 당괴이고 <021, 1845년>

ㅂ'. 경쥬 광암집 순순 싱녀 시훤흐오나 유동으로 이격 희근이 있다 흐오니 넘녀되오며 <225, 1848년>

ㅅ. 뇌후에 동점이 ”셔 딕단히 불양타 흐오니 답” 엇지” 흐올고 <181, 1847년>

ㅅ'. 아옹님 쫑점 실노 고이” 심녀된다 <165, 1846~1848년>

(10) 쥐부르음¹⁸⁾은 거친즉 노 난다 흐오니 그더로 쳐미여 두옵 <050, 1840년>

이 밖에도 ‘담증(痰症), 격담(膈痰)’의 예는 보이나 고유어인 ‘그래춤’의 예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든가, ‘감기(感氣), 감환(感患)’의 예는 보이나 고유어인 ‘콧불’의 예는 나타나지 않고,¹⁹⁾ ‘한속(寒粟), 한속증(寒粟症)’의 예는 보이나 고유

18) ‘쥐부르음’은 ‘쥐부스럼’의 방언형으로 추정된다. ‘쥐부스럼’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머리 위에 톡톡 불거지게 나는 부스럼. 우달(疣瘡)’로 뜻풀이를 제시하였다.

19) ‘콧불>콧불’은 ‘감기’의 고유어라 알려져 있는데, 본래는 ‘감기’와 다소 의미 차이가 있었던 듯하다. 어원적으로도 ‘콧불’은 ‘고[鼻]+ㅅ+불[火]’의 구성으로 파악되며, 17세기 말 『역어유해』에서 ‘鼻淵 콧불<(역어 상:61ㄱ>’, 18세기 『동문유해』에서 ‘害鼻淵 콧불흐다 <동문 하:6ㄱ>’라고 하여 ‘鼻淵’을 번역할 때 ‘콧불’을 사용하고 ‘感冒’은 따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아, 원래 ‘콧불>콧불’은 주로 ‘코감기’를 가리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비연(鼻淵)’을 한의학 용어로서 ‘코염’, 즉 ‘비염’과 동의어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명나라 李時珍의 『本草綱目·百病主治藥下·鼻』에는 “鼻淵, 流濁涕, 是腦受風熱”, 즉 鼻淵은 탁한 콧물이 흐르고 뇌가 風熱을 입은 것이라 하였다]. 그러

어인 ‘소오름>소름’의 예는 전혀 보이지 않는 등 『학봉종가 한글편지』는 질병 명에 있어서 고유어보다는 한자어 사용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학봉종가 한글편지』의 질병 명칭에서 이처럼 한자어 사용 경향이 뚜렷이 드러나는 데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는 국어 어휘사의 일반적인 변화, 즉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되는 변화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중세국어 아래로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나 와(이기문 2001: 118, 190, 227) 근대국어 시기 사대부 계층에서는 여전히 한문 중심의 문자 생활이 지속되면서 한자어의 차용이 더욱 늘어났다고 지적된 바 있다(조남호 1997: 114-118). 한자어가 고유어를 대체하는 경향은 ‘질병 명칭’에 있어서도 예외가 없었는데, 구체적인 예로 신동원(2013: 42-45)에서는 16세기 『훈몽자회』에 제시된 병명 중 외과적 증상에서는 27개 중 19개, 내과적 질병에서는 11개 중 7개, 총 26개의 고유어 병명이 보이는데 이 중 6개가 『17세기 국어사전』(홍윤표 · 송기중 · 정광 · 송철의, 1995)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시기에 병명이나 증상에 대한 명칭이 적잖이 변화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18세기 말 『방언유석』에 수록된 병명 중에 한자어 병명만 있고 고유어가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 “전문 의학 용어를 고유어로 번역하지 않고 음역하는 경향이 계속”되었다고 설명하였다(신동원 2013: 60). 19세기 『학봉종가 한글편지』에 한자어 질병 명칭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역시 이처럼 고유어를 한자어로 대체하는 경향이 일상의 영역에까지 강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 『학봉종가 한글편지』에 한자어 질병 명의 사용 경향이 뚜렷한 것은 이 자료가 사대부 집안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주고받은 ‘편지’라는, 매체의 특성과도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사대부 가문에서 한글편지는 가족 간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수단인 동시에 (특히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 보내는

나 18세기 말 문헌인 『역어유해보』와 『한청문감』에서는 ‘傷風’을 ‘곳불호다. 곳불호다’로 번역하고 있어서 이때는 그 의미가 ‘감기’와 같은 것으로 생각되며, 19세기 말 『한불자전』에서도 ‘곳불 感氣’로 제시하였다. 한편, 조선시대 문헌에서 감기를 가리키는 어휘로 가장 빈번히 등장한 것은 ‘감모(感冒)’였고, ‘감기에 걸리다’의 의미로는 ‘感冒호다’ 혹은 ‘부람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18세기에 ‘감기’가 등장하여 점차 ‘感冒’을 대체하게 되었다.

편지의 경우는)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소통 수단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보다 격식적인 표현을 위해 구어적인 표현, 고유어보다 한자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앞서 예 (1)에서 ‘병’이나 ‘병환’ 외에도 ‘질양, 첨상, 첨환, 첨손, 첨절’ 등 다양한 한자어가 사용된 것이 편지 특유의 격식성, 상대방에 대한 높임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라 지적한 바 있는데, 이 외에도 『학봉종가 한글편지』에는 ‘감기(感氣)’에 대해 ‘감환(感患)', ‘안질(眼疾)’에 대해 ‘안환(眼患)', ‘종기(腫氣)’에 대해 ‘종환(腫患)’과 같이 동일한 질병이라도 일반적인 한자어 명칭과 다른, 높임의 표현이 사용된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결국 19세기 『학봉종가 한글편지』에서 고유어보다 한자어 질병 명칭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은, 근대국어 시기 한자어가 고유어를 대체하는 일반적인 경향과 맥을 같이하는 동시에, 격식성과 높임 표현이 강조되는 한글편지의 매체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방언형의 등장

『학봉종가 한글편지』에 등장하는 질병 명 중에는 다른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어휘도 있다. ‘초점’과 ‘현미, 헐미’가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19세기 당시 경북 지역에서 사용된 방언형으로 추정되는데, 중세국어는 물론 근대국어 시기의 다른 문헌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²⁰⁾ 국어 어휘사, 특히 방언사 연구에서 흥미로운 예라 할 수 있다.

① 초점

『학봉종가 한글편지』에서는 ‘말라리아’를 가리킬 때 한자어인 ‘학증’과 ‘양일학’ 외에 ‘초점’이란 어휘가 쓰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초점’은 ‘학질’에 대한 당시

20)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에는 ‘현미’가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았고, ‘초점’과 ‘헐미’는 표제어로 등재되었다. ‘초점’과 ‘헐미’의 경우, 제시된 예는 모두 『학봉종가 한글편지』가 출전이다. 다만 ‘헐미’와 관련된 형태 ‘헐미’의 예가 『온진송씨 송병필가 인간』 중 19세기 후반의 편지에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 딸부도 헐미 성성치 못 민망흐며 <송병길가-58, 1897년, 전주이씨(언니)→전주이씨(여동생)>

의 방언형으로 파악되는데, 현대국어에서도 경북 지역에는 여전히 이 방언형이 남아 있는 듯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초점01’에 대해 “‘말라리아’의 방언(경북)”이라는 뜻풀이를 제시하고 있다.

- (11) ㄱ. 이명 초점 훌치고 이각되니 괴특호고 혈숙호니 절박다 <058, 1845년, 여강이씨(어머니)→의성김씨(셋째딸)>
- ㄴ. 하계도 안사돈 초점 진포 민망호시다 호니 절박하다 <065, 1847년, 여강이씨(어머니)→김홍락(아들)>
- ㄷ. 한들은 영감괴셔 초점 후 셔감 민망 … 봉준은 성호더니 초점 두 칙 알코 환형” 호니 절박 <096, 1848년, 여강이씨(아내)→김진화(남편)>
- ㄹ. 호철 초점 성소오으나 훌치고 혈숙호온터 <169, 1850년, 의성김씨(둘째딸)→김진화(아버지)>

한편 앞서 예 (5)를 보면 한자어 ‘학증(瘡症)’은 일반적인 학질 또는 그 증상을 가리키는데 ‘양일학(兩日瘡)’은 학질 중에서도 이를 걸러 발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의미 차이가 있었다. ‘초점’의 경우는 (11ㄷ)의 “초점 두 칙 알코”와 같은 예가 있음으로 보아 일반적인 ‘학질’의 의미로 쓰였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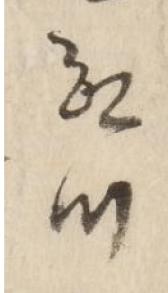
② 헌미, 혈미

『학봉종가 한글편지』에는 ‘헌미’와 ‘혈미’란 명칭도 등장하는데, 이들은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 (12) ㄱ. 쌀도 헌미 점” 나아 무양호온지 <138, 1848년, 아주신씨(장모)→김홍락(사위)>
 - ㄴ. 조식은 그만호온지 헌미로 절박호여들이옵 <146, 1861년, 아주신씨(장모)→김홍락(사위)>
 - ㄷ. 만신 헌미 희포 비쳐스니 <148, 1841~1877년, 아주신씨(어머니)→진성이씨(딸)>
-
- (13) ㄱ. 식탁도 온 여름 혈미로 존상 괴로이 지나옵고 슈격호 모양 갑” 호옵더니 요스이 그만호니 깃부옵고 <223, 1848년, 진주강씨(제수)→김진화(아주버니)>
 - ㄴ. 은더 혈미 깅복호여 죽키 못 견딜가 존상” 피정코 온정 가르 호소 <228, 1878년, 진주강씨(숙모)→김홍락(조카)>

‘현미’와 ‘헬미’는 형태상 “몸에 부스럼이나 상처 따위가 나서 짓무르다”의 의미인 동사 ‘헬다’와 관련될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현듸/현데’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예들을 ‘현듸’의 誤字로 보기는 어려운데, 아래와 같이 필체가 또렷하며 서로 다른 시기의 편지에서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현미’와 ‘헬미’의 표기

〈138〉편지(아주신씨)	〈223〉편지(진주강씨)
	

‘현미’가 등장한 예 (12ㄱ~ㄷ)은 모두 김진화의 안사돈인 아주신씨의 편지이고, ‘헬미’가 등장한 예 (13ㄱ, ㄴ)은 모두 김진화의 제수인 진주강씨의 편지이다. 이를 토대로 추정하자면 ‘현미’와 ‘헬미’는 ‘현듸/현데’의 방언형으로서, 각각 지역 차이를 반영한 형태라 생각된다(‘현데’의 방언형으로 ‘헬메’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참고할 수 있다).²¹⁾

한편, ‘현미’, ‘헬미’가 ‘현데’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형태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동일한 질병에 대한 언급에서 이들이 각각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 예 (12ㄱ)은 김진화의 큰아들 김홍락의 장모인 아주신씨가 사위에게 보낸 편지로, 내용상 발신 시기는 1848년 한여름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는 “쌀도 현미 점점 나아”라고 하여 ‘현미’로 고생하는 인물이 ‘쌀’, 즉 김홍락의 부인인 진성이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예(13ㄱ)은 1848년 9월 12일, 김

21) 『표준국어대사전』에 ‘현데’의 평북 방언으로 ‘헬메’가 등재되어 있는데, ‘헬메’와 ‘헬미’는 기원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화의 제수인 진주강씨가 시아주버니인 김진화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기에서 “식덕도 온 여름 헐미로 존상 괴로이 지나옵고 … 요소이 그만호니 깃부옵고”에서 ‘헐미’로 여름내 고생했던 인물인 ‘식덕’은 바로 김진화의 큰며느리 진성이씨를 가리킨다. 따라서 (12-7)의 ‘현미’와 (13-7)의 ‘헐미’는 둘 다 동일 인물의 동일한 질병을 가리키고 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시기인 1848년 여름에 김진화의 부인 여강이씨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에도 며느리 진성이씨의 질병을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이들 편지에는 아래와 같이 ‘현덕’란 질병 명이 사용되었다.

- (14) ㄱ. 며느리 … 현덕난 팔 아랫마디 느려와 콩낫막곰 혼 거시 도다 까까히 아 푸고 두창 더단 온 머리 성흔 더 업소오니 <096, 1848년 6월 18일>
 ㄴ. 이곳은 여름내 병수 업소오나 며느리 현덕 괴상괴상 약을 무려 먹여도 낫들 아니하고 <098, 1848년 7월 14일>
 ㄷ. 며느리 현덕 두창 쾌초호오니 다행 ” 괴특호오니 넘녀 마시옵 <100, 1848년 7월 말~8월 초>

결론적으로 ‘현덕’와 ‘현미’, ‘헐미’는 모두 동일한 질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되며, 『학봉종가 한글편지』에서 아주신씨와 진주강씨의 편지에만 나타나는 ‘현미’와 ‘헐미’는 ‘현데’의 방언형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학봉종가 한글편지』에 나타난 의약생활사의 모습

『학봉종가 한글편지』에는 다양한 질병의 명칭 및 증상 외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관련된 내용 역시 다양하게 등장한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피우(避憂)’와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한 ‘종두(種痘)’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1) 전염병의 예방: 피우

현대와 같이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못했던 과거에 전염병을 예방하는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어린아이나 임산부 등 특히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을 전염병이 도는 지역에서 피신시켜 ‘청정’ 지역으로 옮겨가 지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피우(避憂)’ 또는 ‘피접(避接)→비접’²²⁾이라고 한다.²³⁾ ‘피접’에서 변한 ‘비접’은 현대국어 사전에도 표제항으로 올라 있으나, ‘피우’는 표제항으로 수록되지 않아서 현대국어에서는 사라진 어휘임을 알 수 있다. 사실 ‘피우’는 중세국어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근대국어 문헌 중에서도 17세기 『현풍곽씨언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인데,²⁴⁾ 19세기 『학봉종가 한글편지』에서는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서 최소한 경북 지역에서는 19세기까지도 이 어휘가 일상에서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5) ㄱ. 한들집은 헌산하고 초칠 전의 피우 나서 삼칠 지내여스오나 <083, 1847년, 여강이씨(아내)→김진화(남편)>
 ㄱ'. 한들집은 박실노 피우 가 이셔 별 탈 업시 삼칠 지내여시나 슈창 터열
 잔상타 호오니 <084, 1847년, 여강이씨(아내)→김진화(남편)>
 ㄴ. 호철 어미는 즉시 가고 호철은 법홍 홍역이 드러 피우로 아직 여의 잇스

- 22)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비접’에 대해 “앓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요양함. 병을 가져오는 액운을 피한다는 뜻이다.”라는 뜻풀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접→비접’은 환자가 자리를 옮겨 요양하는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아직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예방 차원에서 병을 피해 자리를 옮기는 것도 함께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 23) 백두현(2003: 823-824)에서는 『현풍곽씨언간』에 나타나는 ‘피우’를 ‘돌림병 따위의 우환을 피하여 다른 마을이나 산 속으로 옮겨 사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 24) 『현풍곽씨언간』은 17세기 초 경북 현풍 지역에 세거하던 郭濶(1569-1617) 집안의 편지로, 백두현(2003)에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해독 및 역주를 제시하였다. 백두현(2003: 823-824)에서 제시한 ‘피우’의 예를 간략히 줄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예) ㄱ. 피우 간 동성득론 엊더호온고 … 아무리 데케 호나마 피우는 아니흔 동성들란
 드려다가 호일 계고 마옵시고 비덕 업는 골로 아무려나 피우 힘뻐 호읍쇼셔 <126>
 ㄴ. 촌의 피우 나서 고모호기 설워이다 <143>
 ㄷ. 천만 의외에 피우 둉의 딱호읍샨 유무 뱃즈와 보읍고 반갑스오며 <119>
 ㄹ. 아으님 아기내는 편호오더 역신을 아니흔가 피우 간 동성님내는 무사호온가 그
 별 즈시 호 소 … 그리는 동성 피우 둉의셔 <162>

오나 그죽히 흥역 들면 다른 뒤로 보낸다 호읍 <113, 1849년, 여강이씨
(아내)→김진화(남편)>

ㄷ. 슈아 피우 낫다 호더니 엇더호온지 <214, 1849년, 진성이씨(며느리)→김
진화(시아버지)>

예 (15ㄱ~ㄴ)는 김진화의 부인 여강이씨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인데, (15ㄱ, ㄱ')은 ‘한들집’, 즉 김진화의 셋째 딸이 해산을 한 직후에 (아마도 마을의 전염병을 피해) ‘피우’를 가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고, (15ㄴ)은 ‘호철 어미’, 즉 발신자의 둘째 딸이 친정에 왔다가 시댁[법흥]으로 돌아갔으나 외손자 호철은 그곳에 흥역이 유행하므로 돌아가지 않고 흥역을 피해 외갓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15ㄷ)은 김진화의 딸며느리 진성이씨가 외지에 있던 시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로, ‘슈아’[김진화 셋째 딸의 아들인 유연박]가 피우를 한 이후의 근황을 묻고 있다. 이처럼 해산 직후의 여성이나 어린아이들, 특히 아직 흥역 등을 겪지 않은 아이들이 전염병에 감염될까 우려하여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던 당시의 풍습이 이들 편지에 드러나 있다.²⁵⁾ 참고로 李圭景(1788~1856)의 『五洲衍文長箋散稿』「種痘辨證說」에는 “嶺南人畏痘如虎 村有痘 則不痘者避之 故往往至老死免焉(영남사람들은 두창을 호랑이처럼 두려워하여, 마을에 두창이 있은즉 두창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피한다[필자 주: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의미]). 그러므로 왕왕 늙어 죽을 때까지 (두창을) 면하기도 한다.”라 하여 영남의 ‘피우’ 풍속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19세기에 ‘피우’의 풍습은 특히 영남 지역에서 성행한 듯하다.

25) ‘피우’와 같은 어휘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흥역이나 천연두 등의 전염병을 피해 어린아이들을 피신시켰던 정황이 드러나는 편지는 더 찾아볼 수 있다(예: 역질이 있다고 창연을 이리 다려오려 흐엿습더니 홀연 근의 즈식이 시두를 시죽 흐여 못 다려오니 <154, 1833년, 의성김씨(둘째 딸)→김진화(아버지)>). 한편, 『학봉종가 한글편지』에는 ‘피우’ 외에 ‘출피(出避)’의 예도 1회 등장한다. 문맥상으로 ‘피우’와 유사한 의미로 파악되지만, ‘출피’가 ‘비접’이나 ‘피우’처럼 ‘전염병’을 피하여 옮겨가는 일로 한정하여 쓰인 어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예) 건네물을 시기 민망” 당천덕이셔도 큰집이로 출피호오니 수란” 호읍 <038, 1832년>

2) 천연두의 예방: 종두(種痘)

『학봉종가 한글편지』에 등장하는 질병 관련 어휘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동두/종두’이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시대 한글 자료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난 ‘동두/종두’의 예이다.

- (16) ㄱ. 후남 츄돌이 동두 여어 순하고 곱고 이상 그이하고 만니 아니 뜻고 <199, 1830년, 의성김씨(둘째/셋째 딸)→김진화(아버지)〉
- ㄴ. 어린 손즈 놈 종두 여흔 디 삼스 삭이 거의여스오나 역딜 등히 흐고 두 덤 후 옹딜 대단 빅약이 무효흐오니 <006, 1839년, 의성김씨(장모)→김진화(사위)〉
 - ㄷ. 인돌이를 열홋날노 죠두²⁶⁾ 흐려고 의원 내여 보낸다 호절이도 갓치 흐량 으로 흐엿더니 의원의 말이 그소이 알흐다 흐니 아직 못 훌 거시니 종초 종두하게 흐라 흐니 그 말대로 훌 뱃 업다 <019, 1841년, 김진화(아버지) →의성김씨(둘째 딸)〉

(16-ㄱ)은 편지 말미에 “경인 경월 이십구일 여식 술이”라 적혀 있어 편지를 쓴 시기가 1830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편지에 등장하는 ‘후남’은 김진화의 넷째 딸의 아명으로 추정되며 ‘촛돌’은 김진화의 맏아들 김홍락의 아명이다. 이 당시 김진화는 창릉 참봉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경북 안동 금계리의 집을 떠나 서울에 머물고 있었다. 김진화의 둘째 딸(혹은 셋째 딸)이 서울에 가 있는 아버지에게 두 동생이 ‘종두를 넣어’ 결과가 좋아서 순하게 않고 돋아난 것도 많지 않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인데, 이미 1830년에 경북 안동의 사대부 가문에서 역질을 예방하기 위한 種痘法 시행이 일반적이었음을 보여준다. (16-ㄴ)은 편지 말미에 “그히 칠월 념이일 쳐모”라 적혀 있어 1839년 7월 22일 김진화의 장모인 의성김씨가 사위에게 보낸 편지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린 손자에게 종두를 넣은 지 3, 4개월이 되었는데 종두법을 시행하고도 역질을 중히 앓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사연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16-ㄷ)은 1841년에 김진화가 青松 府使로 근무할 때 ‘호절 어미’, 즉 둘째 딸에게 보낸 편지로서, 의원을 보내 둘째 아들

26) ‘종두’의 오기(誤記).

인돌이에게 종두를 하는 김에 외손자 호철도 함께 종두를 하려 계획하였는데 의원의 말이 (호철이) 그 사이 앓았기 때문에 아직은 종두를 할 수 없고 나중에 하라고 하니 그대로 따른다는 사연이다. 이들 편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북 안동 지역에서는 이미 1830년대에 의원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종두’를 ‘넣는’ 방법으로 역질, 즉 천연두를 예방하는 일이 상당히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시행했던 ‘종두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종두법’이라 하면 곧 ‘牛痘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²⁷⁾ 실제로 19세기 전반기에 영남 지역에서 널리 시행되었던 것은 바로 ‘人痘法’이었다. 丁若鏞의 「種痘說」을 보면, 1799년 가을에 燕京에서 전해진 「種痘方」을 얻어 두창의 딱지에 물을 섞어 으깨어 진액을 만들어 솜에 묻혀 코에 넣는 예방 접종 방법을 알게 되었고, 1800년 봄 이 책을 朴齊家에게 보였더니 그가 永平縣의 知縣이 된 후 吏房의 아들과 官奴의 아이, 자신의 조카에게 실제로 시행해 보고 효과를 거두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그 이후 “의사 이씨라는 이를 불러 처방을 주어 두종을 가지고 京城 이북 지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더니 선비 집안에서 많이들 접종하였다”는데 辛酉迫害 때 자신과 박제가는 귀양을 가고 의사 이씨는 고문으로 거동할 수 없게 되어 인두법 시행이 거의 끊어지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정묘년에 내가 康津에 있으면서 듣건대 ‘尙州에 있는 의사가 종두를 접종하는데 1백 명 접종하여 1백 명이 완치되어 큰 이익을 얻었다.’ 하니 아마도 그 처방이 영남에서 다시 유행되었던 모양이다.”라는 기록이 보인다.²⁸⁾ 여기서 ‘정묘년’은 순조 7년인 1807년인데, 정약용의 증언에 따르다면 이 시기 영남에서는 인두법의 시행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 구체적인 사례는 19세기 전반 漢文 日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경상도의 武人 노상추가 남긴 일기에는 1824년 5월 두종을 접종한 증손자가 발반 후 평상으로 회복된 데 반해 庶孫의 종두는 실패하여 재차 접종했다는 기록이 있고, 경상도 문경에 거주했던 洪洛建의 일기에도 1836년 1월 4일 두창을 앓지 않은 아이들에게 종두

27) 한국학중앙연구원(2009ㄱ, ㄴ)에서는 (16ㄱ~ㄷ)의 ‘동두, 종두, 죠두’를 牛痘法으로 해석하는 주석이 제시되어 있다.

28) 다산시문집 10권 「種痘說」. 번역문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참조.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모두 인두법이었다(김호 2016: 84). 이러한 상황은 앞서 예 (16)의 편지에 나타난 종두 시행과 일치하는 것이다.

물론 19세기 초에 조선의 실학자들은 청나라에서 번역, 출판된 서적을 통해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1749~1823)가 1796년에 처음 시행한 ‘牛痘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茶山 丁若鏞이다.²⁹⁾ 김호(2016: 75-80)에서는 정약용이 『麻科會通』에 우두법을 소개한 「新證種痘奇法詳悉」을 補遺로 수록한 시기가 1828년 이후라고 보았는데, 이 부분이 제너의 우두법을 漢譯한 『英咗利國新出種痘奇書』(1805년)의 1828년 北京 奎光齋 重刊本을 토대로 하였기 때문이다.³⁰⁾ 영국에서 제너가 우두법을 시행한 지 불과 30여 년 후에 지구 반대편의 조선에서도 학자들이 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규경의 『五洲衍文長箋散稿』 「種痘辨證說」에는 憲宗 乙未(1835년)에 정약용의 ‘牛乳種痘方’에 대해 들었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³¹⁾ 이처럼 1830년대 이후로 우

29) 정약용의 종두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최익한의 「정다산과 種痘術」(1940)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李圭景의 「種痘辨證說」과 박제가의 掛印紙에 필사된 「신증종 두기법상설」을 토대로 우두법을 포함한 다산의 종두법 수용에 대해 다루었다고 한다(김호 2016: 63).

30) 김호(2016: 70-81)에 따르면 정약용의 『마과회통』은 1797년에 편찬이 시작되어 1798년에 완성되었으나 부록으로 포함된 ‘종두법’ 부분은 그 이후에 저술, 추가된 것이라 한다. ‘牛痘法’보다 먼저 시행되었던 ‘人痘法’와 관련된 「種痘要旨」는 청나라의 인두법 서적인 「種痘方」(鄭望頤 著)과 『醫宗金鑑』 중의 「種痘心法要旨」를 종합하여 1800년에 저술한 것이고, ‘牛痘法’을 소개한 「신증종두기법상설」은 정확한 저술 시기를 알 수 없으나 1828년의 중간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니 그 이후로 추정하였다.

31) 이규경의 『五洲衍文長箋散稿』 「種痘辨證說」에는 현종 을미년(1835)에 ‘丁茶山’이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牛乳種痘方’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 … 歲憲廟乙未。聞中土復出一種奇方。丁茶山鏞藏之云。【某方。茶山祕不示人。或有見者。相傳如此。卽牛乳種痘方。取牝牛乳上有如痘瘡瘡疥者。快取而針將種花小兒。臂上某穴。擦牛乳瘡。則卽出飛痘。不日順成。雖聖痘。不可此方。此痘更無痘後。餘毒永不復出。牛乳瘡。百牛中僅有其一二。故最難得云。愚以爲小兒米痘者得此方。可謂仙劑。而但云臂穴云者。牝牛乳瘡百牛僅一等語。蓋猜人試之。祕其方也。方宓山以智《物理小識》。凡痘發。必中指冷。以包焦也。然則兒之中指與發痘相關。則臂上穴與中指相關者。取而針之。擦牛乳瘡。未爲不可也。欲分別男女。宜取男左女右穴矣。欲得牛乳瘡。歷驗牝牛。而方字乳者未字乳。方孕牛未孕牛。一一取驗。則似可知某牛有某牛無

두법이 실학자들을 통해 알려지고, 실제로 시행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우두법이 ‘인두법’처럼 널리 전파되어 시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³²⁾ 이규경의 기록에 “茶山祕不示人(다산이 숨기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암시하듯 이 시기 우두법은 비밀리에, 널리 알리지 않고 실험을 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선에서 실질적으로 우두법의 시행이 보편화된 것은 19세기 말, 1879년 지석영이 시행한 이후로 보아야 할 듯하다. 따라서 『학봉종가 한글편지』에서 1830년, 1839년, 1840년에 쓰인 편지에 나타난 ‘동두/종두’는 ‘우두법’이 아니라 이 당시 영남 지역에서 성행한 ‘인두법’을 가리킨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5. 결론

본고에서는 19세기 경북 안동 지역 자료인 『학봉종가 한글편지』에 나타난 ‘疾病’ 관련 어휘를 국어사의 측면과 생활사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특징을 찾아보자 하였다. 질병의 문제는 개인, 가족, 사회 모든 차원에서 중대한 일이었던 만큼 당대의 일상생활을 재구함에 있어서 의식주, 관혼상제 등과 더불어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봉종가 한글편지』에 나타난 ‘질병 명칭’을

矣。姑書此。以俟知者之更辨也。】…”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3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종두(種痘)’에 대한 설명(김두종)에서는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1835년(현종 1) 정약용이 일종의 기방(奇方)을 장(藏)하였다고 정확히 기술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 법이 실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이라고 기술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조선에서 牛痘法이 최초로 시행된 시기를 1835년으로 기술한 서적들도 있다. 그러나 이규경이 기술한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자면, 정약용이 남모르게 간직하고 있는 ‘牛乳種痘方’이란 방법에 대해 1835년에 들었다고 하였을 뿐 실제로 실행된 사례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 확실히 우두법이 실행된 사례를 언급한 것은 1854년의 일로, 이규경의 「종두변증설」에서는 1854년(철종 5)에 관서 지방(평안도·황해도)에서도 소아의 팔 위에 침으로 조그마하게 구멍을 만들어 우두즙을 마찰하여 효과를 거두었다는 소문과, 강원도에서도 牛乳瘡로 팔 위에 접종하는 방법이 실시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기술하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종두’, 김호 2016: 81-82).

살펴본 결과, 어휘적 측면에서는 첫째, 고유어보다는 한자어 질병 명의 사용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중세국어 아래로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되는 일반적인 변화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대부 집안의 ‘편지’가 갖는 격식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다른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방언형이 쓰이기도 하였다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초점’과 ‘현미, 혈미’와 같은 어휘가 이 시기 경북 지역에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생활사의 측면에서는, 『학봉종가 한글편지』에 등장하는 ‘피우’의 예를 통해 19세기 전반기 경북 지역에서 전염병, 특히 천연두나 홍역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아직 병을 앓지 않은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피신시키는 풍습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두/종두’의 예를 통해 이 시기 경북 안동 지역에서는 이미 천연두 예방을 위해 어린아이들에게 종두법을 실시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때의 ‘종두’는 요즈음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牛痘法’이 아니라 ‘人痘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밝혔다.

조선시대 한글편지는 국어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주로 사대부 남성의 관점에서 기록된 자료와는 달리 다양한 계층 간, 남성과 여성 간의 소통 수단으로서 공통의 관심사인 ‘일상’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생활사 연구의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앞서 16세기 『순천김씨묘출토간찰』이나 17세기 『현풍 곽씨언간』 등은 당시의 刊本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언어 현상이나 변화, 방언 형이 나타나고 있어서 국어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는데, 이와 함께 이 시기 사대부 집안의 衣食住, 교육, 질병, 가족 간의 갈등 등 다양한 일상생활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되기도 하였다.³³⁾ 이후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일련의 연구를 통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여러 지역, 여러 가문의 한글편지들에 대한 해독과 역주가 이루어졌고, 여러 학자들의 개별

33) 실제로 백두현(2011)에서는 『현풍곽씨언간』를 토대로 17세기 사대부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시도를 하였다. 편지의 사연 중 인간관계, 여행, 출산과 교육, 택일과 의례, 일상의 衣食과 질병 치료에 관련된 내용을 선정하여, 이를 통해 당시 사대부 집안의 생활상을 재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적인 연구 성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앞으로는 좀 더 세분화된 영역의 연구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주제어 : 학봉종가 한글편지, 19세기, 어휘사, 생활사, 한자어, 방언형, 종두, 인두법

투고일(2018. 4. 5), 심사시작일(2018. 4. 19), 심사완료일(2018. 5. 8)

참고문헌

- 김성수(2014), 「18세기 후반 의학계의 변화상: 『欽英』으로 본 조선후기 의학」, 『한국문화』 65.
- 김한별(2005), 『19세기 전기 국어의 음운사 연구: <의성김씨 학봉 종가 언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 호(2016), 「以義順命의 길: 다산 정약용의 種痘法 연구」, 『민족문화연구』 27.
- 백두현(2003), 『현풍곽씨언간 주해』, 태학사.
- _____(2011), 『한글 편지로 본 조선 시대 선비의 삶』, 역락.
- 신동원(2013), 『호환 마마 천연두: 병의 일상 개념사』, 돌베개.
- 이기문(2001), 『(신정판)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병기, 이종덕, 이승희, 김한별(2017), 『의성김씨 학봉 종가 언간의 역주와 스토리 텔링: 김진화와 그 가족 및 주변 인물 이야기』(과제번호:AKSR2016-J04, 최종연구결과물), 한국학중앙연구원.
- 정연식(2005), 「조선시대의 천연두와 민간의료」, 『인문논총』 14.
- 조남호(1997), 「근대 국어 어휘」,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근대편, 국립국어연구원.
- 한국학중앙연구원(2009-), 『의성김씨 김성일파 종택 한글 간찰(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6)』, 태학사.
- _____(2009-), 『의성김씨 천전파·초계정씨 한글 간찰(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10)』, 태학사.
- 황문환, 김주필, 배영환, 신성철, 이래호, 조정아, 조항범 편(2017), 『조선시대 한글 편지 어휘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 허웅(1989),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Abstract〉

A Study on the disease-related vocabulary in *Hakbongjongga Hangeul letters* of the 19th century

Yi Seunghee *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disease-related vocabulary of *Hakbongjongga Hangeul letters* in the 19th century, and identify its characteristics in terms of lexical history and life history. *Hakbongjongga Hangeul letters* shows regional and colloquial features as well as typical features of the 19th century language. It is also an important resource in the study of life history because it shows various daily lives.

In terms of the study on lexical history, the disease-related vocabulary of *Hakbongjongga Hangeul letters* shows a strong tendency to use Sino-Korean words rather than Native Korean words. As the replacement of Native Korean words with Sino-Korean words is a general change from Medieval Korean to Modern Korean, we can see that the disease-related vocabulary of the 19th century also followed that main stream. In addition, *Hakbongjongga Hangeul letters* shows dialect forms for some disease words, which cannot be found in other literal materials.

In terms of the study on life history, through the words ‘pi-u(피우)’ and ‘jongdu(종두)’, it can be examined for way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The word ‘피우’ shows that there was a custom to evacuate people to another area to prevent the epidemic, especially smallpox and measles. In addition, the word ‘종두’ shows that it was common to get inoculation against smallpox at that tim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inoculation was variolation(人痘法), an old method of immunizing individuals against smallpox by infecting them with substance from patients.

Key Words : *Hakbongjongga Hangeul letters*, the 19th century, disease-related vocabulary, lexical history, life history, Sino-Korean words, dialect forms, variolation(人痘法)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angmyung University.